

스페인어 다중 초점 이동과 이차술어 구문

유은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은정(2014), 스페인어 다중 초점 이동과 이차술어 구문.

초 록 본고에서는 스페인어 이차술어 구문(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에서 나타나는 다중 초점(multiple focus) 이동 현상을 다루고자 한다. 스페인어는 초점 구문을 형성할 때, 문장의 좌향 외곽(left periphery)으로 이동하는 초점 요소가 한 문장 내에 하나만 나타나며, wh-의문사 구문에서는 하나의 wh-요소만이 문두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이다.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wh-의문사구도 초점 요소로 다루어진다는 일반적인 논의를 통해, 스페인어는 하나의 초점 요소만이 문두에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스페인어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다중 초점 요소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이차술어 구문의 도출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구조를 바탕으로 다중 초점 요소의 이동이 가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어 이차술어 구문의 도출에 병렬 병합(parallel merge)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성분 통어 영역에서 두 주술관계가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도출 영역에서 생성된 두 초점 요소는 탐침에게 동시에 보일 수 있는 목표(goal)가 됨으로써 다중 초점 이동이 가능하다고 논의하고자 한다.

핵심어 다중 초점 구문, 초점 뭉치, 이차술어 구문

I. 서론

스페인어의 초점 구문(focus construction)에서는 문장의 좌향 외곽(left periphery)으로 이동하는 초점 요소가 한 문장 내에 하나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되어 왔다. 그리고 스페인어는 wh-의문사 구문에서 하나의 wh-요소만이 문두에 나타날 수 있어 다중 의문사구 이동(multiple wh-fronting)이 불가능한 언어이다. wh-의문사구는 초점 요소로 다루어진다는 일반적인 논의를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스페인어는 하나의 초점 요소만이 문두에서 나타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분석의 예상과는 달리, 다중 초점 요소가 문두에서 나타나는 다중 초점 구문(multiple focus construction)이 스페인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물론 모든 문장에서 다중 초점 구문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다중 초점 요소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스페인어 이차술어(secondary predicate) 구문에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문장과는 달리,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어떻게 다중 초점 요소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지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차술어 구문의 도출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설명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II. 스페인어 초점 구문과 wh-의문사 구문

1. 초점 이동과 다중 wh-의문사구 이동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에서 초점 요소가 문장의 좌향 외곽으로의 이동하는 구문은 화제(topic) 요소의 이동과는 문두로 이동할 수 있는 어휘 요소의 수에 있어 두 구문에서 서로 차이가 나타난다. 다음 (1)의 예문을 살펴보자.

(1) a. A María, los libros, se los compramos en esta librería.

b. Un libro a mí Juan en Navidad nunca me lo ha regalado.

(Rodríguez Ramalle 2003, 118; Casielles 2004, 74)

(1)과 같은 화제 구문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화제 요소가 문두에 나타나는 것

이와 같이 스페인어에서 다중 초점 구문은 허가되지 않으며, Cinque(1983; 1990), Rizzi(1997), Zubizarreta(1998; 1999) 등은 초점 요소가 문장의 좌향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만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¹⁾

즉, 스페인어는 문장의 좌향 외곽으로 하나의 초점 요소만이 이동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이 위치를 Spec-C 혹은 Spec-Foc라고 가정할 때 하나의 CP 혹은 하나의 FocP만이 투사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페인어는 문두로 다중 wh-의문사구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에 속한다.²⁾ 다음 (5)의 예를 살펴보자.

- (5) a. ¿Quién le dio el libro a quién?
 b. *¿Quién a quién le dio el libro?

(5)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 내에 두 개의 wh-의문사구가 도출되는 경우, 이 중 하나의 wh-구만이 문두로 이동하고 다른 하나의 wh-구는 제자리에 남아있는 문장이 정문이다. 두 개의 wh-의문사구가 모두 문두로 이동하는 (5b)는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불가리아어나 루마니아어와 같은 언어는 다중 wh-의문사구 이동이 가능한 언어이다.

1) 스페인어와 동일하게, 이탈리아에서도 하나의 문장 내에서 초점 요소는 하나만 문장의 좌향 외곽에 나타날 수 있으며, 화제 요소는 하나 이상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 (i) a. Il libro, a Gianni, domani, glielo daro senz'altro.
 'The book, to Gianni, tomorrow, I'll give it to him for sure.'
 b. *A GIANNI IL LIBRO darò (non a Piero, l'articolo).
 'TO GIANNI THE BOOK I'll give, not to Piero, the article.'

(Rizzi 1997, 290)

(ia)는 화제 구문으로 문두에 세 개의 화제 요소가 도출된 구문으로 정문이지만, (ib)에는 두 개의 초점 요소가 이동한 구문으로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2) 영어도 스페인어와 함께 다중 wh-의문사구의 이동을 허가하지 않는 언어로 하나의 의문사만이 문두로 이동하고 다른 하나의 의문사는 제자리에 남게 된다.

- (i) a. What did you give to whom?
 b. *What to whom did you g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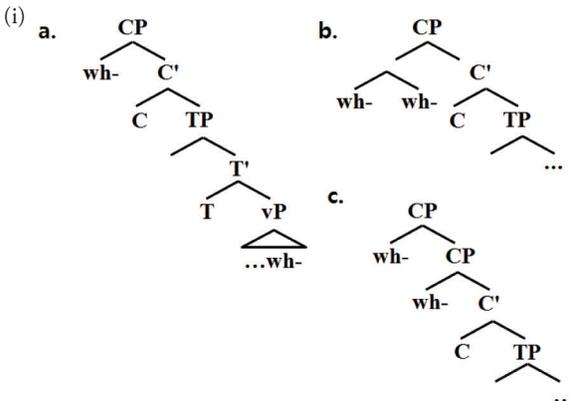
(6) a. Koj	kogo	vižda?	
who	whom	sees	
b. Cine	cu	ce	merge?
who	with	what	goes?

(Rudin 1988, 449)

(6a)의 불가리아어나 (6b)의 루마니아어는 문두로 하나 이상의 wh-구가 이동하는 다중 의문사구 이동 구문이 정문이다.

(5)와 같이 다중 의문사구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언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wh-구만이 Spec-C로 이동하고 다른 wh-구는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6)과 같이 다중 의문사구 이동이 가능한 언어의 경우에는, 모든 wh-구가 Spec-C로 외현적으로 이동하는 구조나 CP에 다중 지정어(multiple specifier)를 설정하는 구조 등으로 분석한다.³⁾ 즉, 다중 의문사구 이동이 일어

3) 다음 (ia)가 다중 의문사구 이동이 불가능한 스페인어나 영어의 구조를 나타내고, (ib), (ic)는 다중 의문사구 이동이 가능한 불가리아어, 루마니아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등에 적용되는 구조이다.



(ib)의 구조는 다중 의문사구가 외현적 이동을 할 때 의문사구 사이에 어순이 정해져 있고, 의문사구 사이에 다른 요소의 개입이 없는 불가리아어, 루마니아어 등에 적용된다. (ic)의 구조는 다중 의문사구의 외현적 이동에서 우월성이 나타나지 않고, 의문사구 사이에 다른 요소의 개입이 가능한 세르보-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등에 적용된다. 다중 의문사구 이동 구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Rudin(1988), Richard(1997), Pesetsky(2000), Bošković(2002), Boeckx & Grohmann(200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지 않는 스페인어는 CP에 다중 지정어를 설정한다거나 CP범주가 반복되는 구조는 허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의 통사적 위계

앞서 스페인어는 wh-의문사구가 함께 문두에서 도출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두 개의 초점 요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럼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 사이에서 도출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wh-의문사는 초점 요소로 다루어진다(cf. Rizzi 1997; Zubizarreta 1998). 다음 (7)에서 보듯이, wh-의문사구는 이동한 화제의 요소와는 함께 도출될 수 있지만, 이동한 초점 요소와는 함께 도출될 수 없다.

- (7) a. A Luis, ¿qué le has dicho?
 b. *¿Qué, a Luis, le has dicho?
 c. *TEMPRANO (y no tarde) ¿quién salía de su casa?
 d. *¿Quién TEMPRANO salía de su casa (y no tarde)?

(Rodríguez Ramalle 2003, 118)

의문사 ‘qué’가 나타나는 (7a)에서 화제 요소 ‘a Luis’는 의문사와 함께 도출이 가능하다. 반면에, 의문사 ‘quién’이 나타나는 (7c)의 경우는 초점 요소 ‘TEMPRANO’가 함께 도출되었고, 이 문장은 비문이다. wh-의문사구는 초점 요소로 분석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할 때, Rizzi(1997)의 CP 세분화 구조(CP split construction)⁴⁾에 따라 wh-의문사는 Spec-Foc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7c)가 비문인 것은 두 요소가 동일한 통사적 위치 Spec-Foc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화제 요소나 초점 요소와 의문사 사이의 어순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 (7a)에서 화제 요소 ‘a Luis’가 wh-의문사 앞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문인 반면, 화제 요소 ‘a Luis’가 ‘qué’를 뒤따

4) Rizzi(1997)의 CP 세분화 구조는 다음과 같은 위계로 나타난다.

(i) ForceP > TopP > FocP > FinP > TP

르는 어순은 비문이 된다. 이는 CP 세분화 구조에 따라 ‘TopP > FocP’의 어순으로 정보 구조의 화제와 초점 사이의 위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wh-의문사구가 초점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에 화제 요소의 뒤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7c, d)에서 알 수 있듯이, 초점 요소 ‘TEMPRANO’와 의문사 ‘quién’이 함께 나타나는 구문에서는 그 어순과는 무관하게 모두 비문으로 판정된다. 이로써 문장의 좌향 외곽에는 초점 요소가 두 개 이상 나올 수 없으며,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 역시 함께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어는 다중 의문사구 이동과 다중 초점 이동이 불가능하며, 이는 두 요소가 이동하는 위치가 하나-즉, Spec-C 혹은 Spec-Foc-로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III. 다중 초점 구문

1. 이차술어 구문

이 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하나의 문장 내에서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도출되는 구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스페인어 이차술어 구문에서 초점 요소가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구문을 다루고자 한다.⁵⁾

- (8) a. ¿Quién AGOTADO llegó?
 b. ¿Qué CASI BORRACHA escribió Marta?
 c. ¿Qué canción EMOCIONADO está cantando Luis?
 d. ¿Qué plato TODAVÍA CALIENTE le sirvió Marta?

위의 (8)의 예들은 모두 이차술어 구문에 해당한다. 평서문의 경우라면 (8)의 예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5) (8)과 (10)의 다중 초점 구문의 예는 스페인어 원어민 5명-멕시코 2명, 스페인 1명, 콜롬비아 1명, 파라과아이 1명-의 검증을 거쳤다.

- (9) a. Juan llegó agotado.
- b. Marta escribió la carta casi borracha.
- c. Luis está cantando el himno nacional emocionado.
- d. Marta le sirvió el plato todavía caliente.

(9)에서 ‘agotado’, ‘casi borracha’, ‘emocionado’, ‘todavía caliente’는 각각 모문의 주어 ‘Juan’, ‘Marta’, ‘Luis’, 모문의 목적어 ‘el plato’의 이차술어로 사용되었다. 모문의 동사 술어가 모문 주어와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차술어는 자신의 주어와 함께 독립적인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고 절의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8)의 예문으로 돌아가 보자. (8a)는 주어가 wh-구로 문두로 이동하였으며, 주어 술어 ‘AGOTADO’가 초점 요소로서 문장의 좌향 외곽으로 이동한 구문이다. (8b)는 목적어가 wh-이동을 하였고, 주어 ‘Marta’의 이차술어인 ‘CASI BORRACHA’가 초점 이동한 구문이다. (8c) 역시 목적어 wh-이동과 주어 ‘Luis’의 이차술어 ‘EMOCIONADO’의 초점 이동이 이루어진 구문이다. (8d)는 목적어 wh-이동과 함께, 목적어 술어 ‘TODAVÍA CALIENTE’가 초점 이동한 구문이다. 즉, (8)에서는 wh-구와 이차술어가 문장의 좌향 외곽에서 함께 도출되었으며 모두 정문으로 판정된다. wh-의문사구를 초점 요소라고 할 때, 이 예문들은 한 문장에 두 개의 초점 요소가 이동한 구문으로 앞서 II.2에서 살펴본 논의와는 부합하지 않으며, (7c, d)에서 wh-의문사와 초점 요소가 도출된 구문이 비문이라는 분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 (10)의 예문을 살펴보자. 역시 이차술어 구문이며 하나의 문장 내에 두 개의 초점 요소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 (10) a. INCLUSO CRISTINA AGOTADA compró el coche.
- b. SOLO EL ARQUITECTO ENTUSIASMADO diseñó la casa.
- c. INCLUSO MARTA ENFADADA salió de la oficina.
- d. SOLO JUAN TODAVÍA EMOCIONADO recibió a los invitados.

(10)에서는 모문의 주어와 이차술어가 모두 초점 요소로서 함께 문장의 좌

향 외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앞서 II.1에서 (2), (4)의 예들을 통해, 하나의 문장 내에서 두 개의 초점 요소가 이동한 구문은 비문이라고 분석한 논의와 일치하지 않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8)과 (10)의 다중 초점 구문들은 기존의 분석에서 한 문장 내에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문장의 좌향 외곽에서 도출되는 것이 비문이라는 논의에 반하는 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중 초점 요소의 이동이 스페인어 이차술어 구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2. 이차술어 구문의 도출

일반적인 문장에서와는 달리 왜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문두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를 위해 먼저 이차술어 구문의 도출 구조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차술어는 모문의 주어나 직접목적어를 자신의 주어로 하여 모문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는 구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 (11a)의 이차술어 구문은 의미적으로 (11b)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11) a. Marta compró el coche emocionada.
 b. Marta compró el coche y Marta estaba emocio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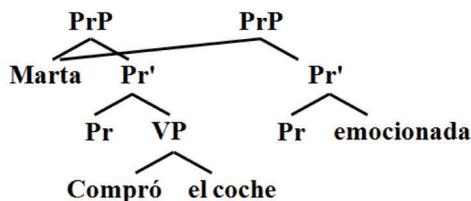
모문의 주어 'Marta'와 모문 술어인 동사 'comprar'가 이루는 모문의 주어-술어 관계와 함께, 모문의 주어 'Marta'와 형용사 술어 'emocionada'는 또 하나의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한다. 이 각각의 주어-술어 관계의 도출은 그 주어와 술어 사이에 자체의 성분 통어(c-command) 관계를 형성하면서 병합되며, 독립된 성분 통어 영역을 형성한다. 그리고 두 주술 관계는 공통된 하나의 요소, 다시 말해 (11)에서 모문의 주어 'Marta'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차술어 구문의 구조를 위해 본고에서는 Citko(2005)의 병렬 병합(parallel merge)을 도출의 과정에 적용하고자 한다. 병렬 병합은 집합 병합(set-merge), 이동을 위한 쌍-병합(pair-merge)과 함께, 제 3의 병합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통사체가 서로의 내부 요소를 공유하면서

병합되는 것으로 이러한 병합의 과정을 통해 두 통사체는 다중 관할 (multidominance)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⁶⁾

(12) Parallel Merge is like External Merge in that it involves two distinct rooted objects, but it is like Internal Merge in that it combines the two by taking a subpart of one of them.

이러한 병렬 병합을 (11a)의 이차술어 도출 과정에 적용하면, 모문의 주술관계의 투사 PrP와 이차술어의 주술관계의 투사 PrP가 각각의 통사체로 투사되는 단계에서 두 주술관계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어휘 요소, 즉 'Marta'가 도입되는 순간에 두 통사체는 이를 중심으로 서로 병렬 병합을 하게 된다. 이러한 도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두 주술 관계가 공유하고 있는 모문의 어휘 요소를 하나의 축으로 하여 각각

6) Citko(2005)의 병렬 병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이러한 병렬 병합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두 VP가 하나의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는 등위 구문의 도출 구조에 적용될 수 있다.

(ii) a. John likes and Bill hates Mary.

b. Mary sold and John bought the car.

즉, (ii)a)에서는 두 문장의 공통된 요소 'Mary'를 'likes'와 'hates'가 공유하는 구조이며, (ii)b)에서는 두 문장의 공통된 요소 'the car'를 'sold'와 'bought'가 공유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의 PrP범주는 다중 관할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두 통사체의 공통된 요소 ‘Marta’로 연결되어 있을 뿐, 모문의 성분 통어 영역과 이차술어의 성분 통어 영역은 서로 구별된다.⁷⁾ 즉, 서로 별개의 도출 영역에서 어휘 요소의 병합과 주어-술어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병합의 구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차술어 구문에서 다중 초점 구문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다음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IV. 초점 이동과 초점 뭉치

1. 이차술어 구문의 초점 이동

탐침이 탐색 가능한 하나의 성분 통어 영역 내에 두 개의 초점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이 두 요소는 동일한 탐침(probe)과 일치할 수 있는 합치하는 목표(matching goal)가 된다. 이때 탐침이 하나의 목표를 탐색하여 일치한 후에는 목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탐침과 일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Chomsky(2000)의 결여 성분 간섭 제약(Defective Intervention Constraints)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4) Defective Intervention Constraints

$$\alpha > \beta > \gamma$$

Where α c-commands β and γ , β and γ match the probe α , but β is inactive so that the effects of matching are block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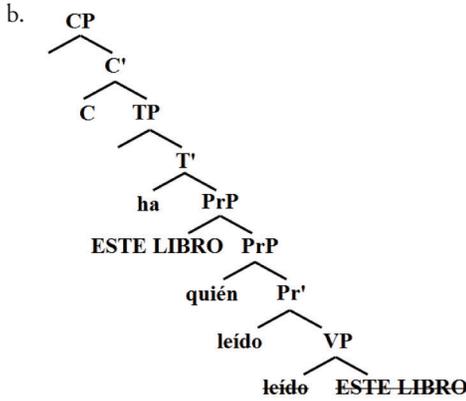
(Chomsky 2000, 123)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장 내에 두 개의 초점 요소를 갖고 있는 (15a)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⁸⁾

7) 이차술어 구문에서 병렬 병합을 통한 다중 관할 구조로의 도출 분석은 유은정(2012b)을 참고할 수 있다.

8) wh-의문사와 초점 요소 사이의 도출 관계에 대한 논의는 유은정(2012a)을 참고할 수 있다.

(15) a. *ESTE LIBRO ¿quién ha leí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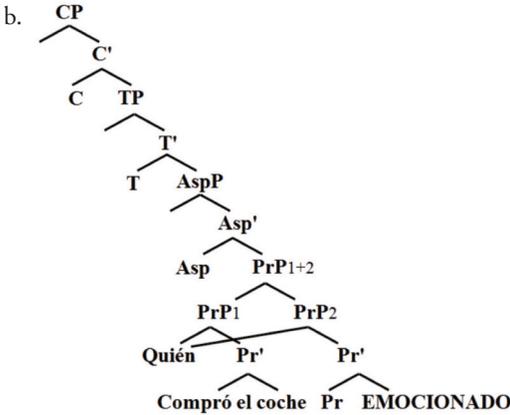


두 초점 요소 ‘quién’과 ‘ESTE LIBRO’는 하나의 탐침-C 혹은 Foc-과 일치해야 하는 요소이다. Chomsky(2001)의 국면 불가침 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이하 PIC)에 따라 초점 자질을 갖고 있는 ‘ESTE LIBRO’는 V의 보충어 위치에서는 탐침에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면 PrP의 외곽 지정어(outer-spec)자리로 이동하여 상위 국면 CP의 핵 C에게 보이는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하나의 탐침과 초점 자질을 점검할 두 요소 ‘quién’과 ‘ESTE LIBRO’는 탐침이 점검할 수 있는 합치하는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C는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ESTE LIBRO’와 자질 점검을 하고 Spec-C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여 성분 간섭 제약에 따라 ‘quién’은 탐침과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문장은 파탄되는 것이고,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가 함께 문두로 이동하는 것은 비문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도출 공간에서 도출된 두 개의 요소가 서로 성분통어 관계에 있을 때, 탐침은 두 개의 요소 가운데 더 가까운 요소를 목표로 하여 자질을 점검하므로 또 다른 요소는 결여 성분 간섭 제약에 의해 탐침과의 일치가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성분 통어 영역에서 도출된 두 초점 요소는 하나의 탐침과 동시에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초점 요소의 이동은 비문이 되는 것이다.

이제 다중 관할 구조로 도출된 이차술어 구문에서 다중 초점 구문을 살펴보

자. 두 PrP범주가 하나의 공통된 요소를 중심으로 병렬 병합되어 독립된 자체의 성분 통어 영역을 형성하는 이차술어 구문은 서로 별개의 통사체로 투사된다. 이후 단일 통사체(single syntactic object)를 형성하기 위해 두 PrP범주가 합쳐지고 다음과 같이 기능 범주의 투사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투사된다.⁹⁾

(16) a. ¿Quién, EMOCIONADO compró el coche?



(16b)의 두 초점 요소 ‘Quién’과 ‘EMOCIONADO’는 서로 성분 통어 관계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결여 성분 간접 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합치하는 목표가 될 수 있는 두 요소가 서로 다른 도출의 영역 내에 있고 그 목표가 탐침이 점검할 수 있는 탐색 영역 내에 있다면, 하나의 탐침에게는 각 도출 영역에 있는 초점 요소가 동시에(simultaneously)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탐침은 이 두 요소와 동시에 일치하여 자질 점검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초점 요소 ‘Quién’과 ‘EMOCIONADO’는 하나의 탐침과 동시에 일치하여

9) 두 통사체가 서로 별개의 공간에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도출이 합치(convergence) 되기 위해서는 Chomsky(1995, 226)의 단일 통사체 조건에 의해 하나의 통사체로 합쳐져야 의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i) Single Syntactic Object Condition

At the LF interface, Σ can be interpreted only if it consists of a single syntactic object.

자질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독립된 성분 통어 영역에서 도출된 요소가 하나의 탐침이 탐색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다면, 탐침에게 동시에 유인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탐침이 두 목표와 동시에 일치하는 다중 일치(Multiple Agree)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서로 독립된 성분 통어 영역을 이루는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두 영역 내에 포함된 각각의 요소에는 결여 성분 간섭 제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하나의 성분 통어 영역 내에 있는 두 요소에는 결여 성분 간섭 제약이 적용되어 두 초점 요소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2. 초점 뭉치

이제 이차술어 구문에서 두 초점 요소를 점검할 탐침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두 초점 요소를 점검할 탐침은 C (혹은 Foc)이며, C와의 일치를 통해 Spec-C (혹은 Spec-Foc)로 두 초점 요소가 모두 이동해야 한다. 결국 두 초점 요소는 하나의 탐침과 일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동일한 위치로 두 개의 요소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Grewendorf (2001), Sabel(2001)의 뭉치 가설(Cluster Hypothesis)을 가정하고자 한다.

(17) Cluster Hypothesis

A feature F that is attracted by K attracts a feature of the same type F.

(Sabel 2001, 533)

(17)의 뭉치 가설에 따라, 초점 요소인 wh-의문사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자질, 즉 초점 자질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초점 요소인 이차술어를 유인할 수 있다. 그리고 wh-의문사구에 이 초점 요소 부가하여 이를 wh-구로 투

10) Hiraiwa(2000)는 성분 통어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점검 가능한 목표를 찾아 동시에 일치하는 다중 일치를 주장한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다중 일치는 이와는 다른 개념이다. 하나의 성분 통어 영역에서 도출된 두 개의 초점 요소는 하나의 탐침과 다중 일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성분 통어 영역에서 도출된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동일한 탐침의 영역 내에 있을 때 다중 일치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사하는 초점 뭉치(focus cluster)를 형성하게 된다.

두 초점 요소가 초점 뭉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다중 초점 이동 구문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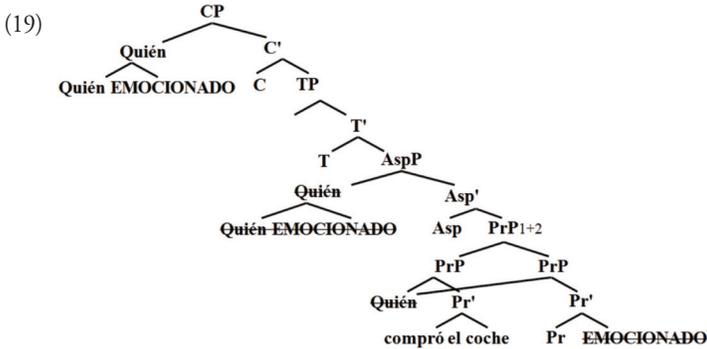
- (18) a. *¿Quién, ayer, AGOTADO llegó?
 b. *¿Qué, en casa, CASI BORRACHA escribió Marta?
 c. *AGOTADO ¿quién llegó?
 d. *CASI BORRACHA ¿qué escribió Marta?

(18a,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초점 요소 사이에 ‘ayer’, ‘en casa’와 같은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18c, d)에서와 같이 두 초점 요소 사이의 어순이 정해져 있어 항상 ‘wh-의문사구 + 이차술어’라는 어순으로 나타나며, ‘이차술어-wh-의문사’의 어순은 비문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wh-의문사가 다른 초점 요소와 하나의 구성성분(constituent)을 형성한다는 초점 뭉치의 형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17)의 뭉치 가설에 따라, 초점 요소인 wh-의문사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자질, 즉 초점 자질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요소인 이차술어를 유인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초점 뭉치는 항상 ‘wh-의문사구 + 이차술어’라는 어순으로 나타나 wh-의문사구가 이차술어를 유인하는 것이지 그 반대의 과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점 뭉치의 형성은 C와의 점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해진 어순의 하나의 구성 성분이 형성되어야 한다. 다중 초점 구문의 초점 요소들은 Spec-C로 이동하기 전에 미리 Spec-Asp에서 초점 뭉치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Chomsky(2001)의 PIC에 따라 제자리에 있는 초점 요소는 C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Spec-Asp로 이동하여 초점 뭉치를 형성하는 것이다.¹¹⁾ 이러한 초점 뭉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두 요소가 공유하는 공통된 자질, 즉 초점 자질이 뭉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하

11) Chomsky(2001)의 PIC에 따라, 탐침 C에게는 CP가 투사되는 시점에 하위 국면 PrP의 보충어 위치에 있는 이차술어가 보이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ec-Asp로 이동한 ‘Quién’의 초점 자질은 동일한 자질을 갖고 있는 이차술어 ‘EMOCIONADO’를 유인하여 초점 멍치를 형성한다.¹²⁾ 이 초점 멍치는 wh-의문사구 ‘Quién’으로 투사되고 이 초점 멍치는 탐침 C와 일치하여 자질을 점검하고 Spec-C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Sabel(2001)은 멍치를 형성할 때 wh-의문사구가 동일한 자질을 갖는 요소를 유인하면서 그 자질이 점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멍치 가설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하나의 명사구는 기능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

12) 익명의 심사자는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도 이차술어 구문에서 다중 초점 구문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필자는 영어의 이차술어 구문도 병렬 병합을 통해서 다른 도출의 영역을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에는 이차술어의 초점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는 도출의 과정에 있어서 두 언어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초점 요소인 이차술어의 이동은 상위 국면의 핵에게 보이기 위해 국면의 외곽 지정어 자리를 거쳐 이동한다. 그런데 스페인어와는 달리, 영어는 V-to-T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9)와 같은 구조에서 PrP 자체가 국면으로 기능한다. 두 PrP범주가 서로 공유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병렬 병합된 이후에는 이차술어가 이루는 PrP범주의 외곽 지정어 자리는 이동할 수 없는 자리라고 가정할 때, 상위 국면 CP의 핵 C에게 제자리에 있는 이차술어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는 이차술어 구문에서 술어의 외현적인 초점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스페인어는 V-to-T이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PrP 국면이 AspP로 확장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Spec-Asp로의 초점 이동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 언어의 매개변인적 요소를 고려하여 초점 이동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며, 병렬 병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중 초점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소의 자질을 점검한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본다. 즉, 같은 초점 자질을 갖고 있는 요소와 문치를 형성한다는 것이지 Spec-Asp에서 자질의 일치와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초점 문치 형성을 위한 Spec-Asp로의 이동은 Chomsky(2000)의 간접적인 자질 이동(indirect feature-driven movement)이라고 보며 Spec-C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점 문치의 형성을 하나의 초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서 하나의 문장에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가 있는 (15a)와 같은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은 초점이 두 개이기 때문이며, (16a)의 경우는 별개의 두 성분 통어 영역에서 도출된 두 초점 요소가 하나의 초점으로 문치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초점 문치를 형성할 때 wh-의문사가 이차술어를 앞서는 어순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8)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점 문치는 항상 wh-의문사가 앞서는 어순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wh-의문사와 이차술어는 서로 다른 성분 통어 영역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두 요소 중 어떤 한 요소가 Asp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접성(closeness)에 따라 먼저 이동해야 하는 요소가 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초점 문치의 어순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초점 요소를 유인할 수 있는 주체(host)는 논항이라고 주장한다.¹³⁾ 이는 Grewendorf(2001), Sabel(2001)가 다른 초점 요소를 유인할 수 있는 자질은 지시성(referentiality)을 갖고 있는 DP범주이며 그 핵인 D가 다른 초점 요소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초점 문치는 DP로 투사되는 범주인 것이다. 따라서 (8)에서는 DP인 wh-의문사구에 다른 초점 요소인 이차술어가 부가되는 것이다. (10)에서도 명사구 DP가 주체가 되어 동일한 자질을 갖는 다른 초점 요소를 유인하는 것으로, 모문의

13) 초점 문치에서 주체가 되는 요소가 논항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비논항이 주체가 되는 초점 문치가 비문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i) a. *¿Cómo EMOCIONADO cantó Luis?
 b. *¿Por qué EMOCIONADO cantó Luis?

논항 DP에 이차술어가 부가되는 어순으로 초점 문치가 형성되는 것이다.

3. 의문사구 문치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두 개의 초점 요소, 즉, ‘초점-초점’, ‘wh-의문사-초점’의 도출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5)에서 스페인어가 다중 wh-의문사구 이동이 불가능한 언어라고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이차술어 구문에서도 다중 의문사구 이동은 불가능하다.

- (20) a. *¿Quién, qué tan agotado llegó?
 b. *¿Qué, qué tan borracha escribió Marta?
 c. *¿Qué canción, qué tan emocionado está cantando Luis?

초점 요소가 두 개 도출되는 구문이 정문이라면, 초점 요소로 분석되는 wh-의문사가 두 개인 구문도 정문이 되어야 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차술어 구문에서 다중 의문사구 이동은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문이다. 그렇다면 왜 다중 wh-의문사구 이동이 불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초점 문치를 형성할 때, wh-의문사는 동일한 자질의 요소를 자신에게 부가하는데 그 동일한 자질은 초점 자질이다. 즉, 다중 초점 구문에서는 Spec-Asp에서 초점 문치의 형성을 통해 하나의 초점 요소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과 같은 다중 의문사구 이동을 위해서는 두 개의 의문사구가 문치를 형성해야 한다. wh-의문사구가 동일한 자질, 즉 초점 자질을 갖는 wh-의문사구를 자신에게 부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사구가 초점 문치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a)의 경우, wh-의문사구 ‘Quién’이 ‘qué tan agotado’를 유인하여 이를 ‘Quién’으로 투사하면서 wh-의문사구가 갖는 공통된 초점 자질을 통해 초점 문치를 형성한다면, C와 초점 자질은 점검하지만 ‘Quién’에 부가되어 있는 ‘qué tan agotado’에 남아있는 wh-자질은 점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도출은 파탄될 것이다. 이는 다중 의문사구 이동이 불가능한 언어에서는 의문사구 문치의 형성이 금지된다는 것을 논의한

Stoyanova(2008)에 따라, wh-의문사구는 다른 wh-의문사구를 유인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어에서는 의문사구 뭉치의 형성은 불가능하며, 다중 wh-의문사구의 이동은 비문이 되는 것이다.

V. 결론

스페인어는 다중 wh-의문사구 이동이 허가되지 않는 언어이며, 문장의 좌향 외곽에서 하나의 초점 요소만이 도출 가능하다. wh-의문사구가 일종의 초점 요소라는 분석에 따라,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는 하나의 탐침과 일치해야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스페인어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문장의 좌향 외곽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이차술어 구문의 도출에 다중 관할의 구조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도출의 영역에서 생성된 초점 요소는 탐침에게는 합치하는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도출 영역 내에 초점 요소가 두 개 이상 있다면, 이는 결합 성분 제약에 따라 탐침에게 가까이 위치한 하나의 요소만이 이동하여 탐침과 일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분석에서 하나의 문장 내에서 문두로 초점 이동한 요소는 하나만 가능하다는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도출의 영역이 두 개로 이루어진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모두 탐색 가능한 목표로서 동시에 탐침에게 보인다고 가정한다. 이때 다중 초점 구문은 초점 요소 사이에 정해진 어순을 갖는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초점 뭉치를 형성한다고 보았고, Spec-Asp에서 형성된 초점 뭉치는 Spec-C로 이동하여 자질의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차술어 구문의 다중 초점 이동은 서로 다른 성분 통어의 영역에서 두 초점 요소가 도출되어 하나의 탐침과 일치함으로써 다중 일치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 유은정(2012a), 「스페인어 wh-감탄문과 감탄문 내 보문소 ‘que’의 분석」, 스페인어문학, 62호, pp. 59-83.
- _____(2012b), 「추출영역조건(CED)과 부가술어의 이동」, 스페인어문학, 64호, pp. 159-180.
- Boecks, C. & Grohmann, K.(eds.)(2003), *Multiple Wh-Fronting*. Amsterdam: John Benjamins.
- Božković, Ž.(2002), “On multiple wh-fronting,” *Linguistic Inquiry* 33, pp. 351-383.
- Casielles, E.(2004), *The Syntax-Information Structure Interface: Evidence from Spanish and English*, New York: Routledge.
- Chomsky, N.(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The MIT Press.
- _____(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Martin, R., D. Michaels & J. Uriagereka(eds.),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Cambridge, MA: MIT Press, pp. 89-155.
- _____(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stowicz, M.(ed.), *Ken Hal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pp. 1-52.
- _____(2004), “Beyond Explanatory Adequacy,” in Belletti, A.(ed), *Structures and Beyond.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Vol. 3,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04-131.
- _____(2008), “On Phases,” in Sauerland, U. & H.-M. Gartner(eds.), *Interfaces + Recursion = Language?*, New York: Mouton de Gruyter, pp. 1-29.
- Cinque, G.(1983), “Topic constructions in some European languages and “connectedness,” in Ehlich, K. & H. Riemsdijk(eds.), *Connectedness in Sentence, Discourse and Text*, Tilburg: KBU, pp. 7-42.
- _____(1990), *Types of \bar{A} -dependencies*, Cambridge, MA: MIT Press.
- Citko, B.(2005), “On the Nature of Merge: External Merge, Internal Merge, and Parallel Merge,” *Linguistic Inquiry* 36, pp. 475-496.
- Grewendorf, G.(2001), “Multiple Wh-Fronting,” *Linguistic Inquiry* 32, pp. 87-122.
- Hiraiwa, K.(2000), “Multiple Agree and the Defective Intervention Constraint in Japanese,”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0, 67-80.
- Pesetsky, D.(2000), *Phrasal movement and its kin*. Cambridge: MIT Press.
- Richards, N.(1997), *What moves where when in which language?*, Doctoral dissertation,

- MIT.
- Rizzi, L.(1997), “The Fine Structure of Left Periphery,” in Haegeman, L.(ed), *Elements of Grammar*, Dordrecht: Kluwer, pp. 281-336.
- Rodríguez Ramalle, T. M.(2003), *La Gramática de los Adverbios en -Mente o Cómo Expresar Maneras, Opiniones y Actitudes a través de la Lengua*, Madrid: UAM ediciones.
- Rudin, C.(1988), “On Multiple Questions and Multiple Wh-Fronting,”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6, pp. 445-501.
- Sabel, J.(2001), “Deriving Multiple Head and Phrasal Movement: The Cluster Hypothesis,” *Linguistic Inquiry* 32, pp. 532-547.
- Stoyanova, M.(2008), *Unique Focus: Languages without Multiple Wh-questions*, Amsterdam: John Benjamins.
- Zubizarreta, M. L.(1998), *Prosody, Focus, and Word Order*, Cambridge: MIT Press.
- _____(1999), “Las funciones informativas: Tema y Foco,” in Bosque, I. & Demonte, V.(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Vol. 3, Madrid: Espasa-Calpe, pp. 4215-4244.

유 은 정

한국외국어대학교
patricia5@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4년 2월 24일

심사완료일: 2014년 4월 7일

게재확정일: 2014년 4월 14일

An Analysis of Spanish Multiple Focus Movement and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Eun-jung Yo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u, Eun-jung(2014), An Analysis of Spanish Multiple Focus Movement and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treat the multiple focus movement in Spanish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Only one focus element can move to the left periphery within a clause in focus construction. Moreover, one wh-element can appear in clause-initial position in Spanish wh-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similarities between wh-element and focus element, it is argued that wh-elements could be treated as focus elements. Therefore, in Spanish one focus element appears in the left periphery of the sentence. However, two focus elements can move to the left periphery in Spanish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To explain this phenomenon, I will propose a novel structure of derivation for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and I will argue that multiple focus movement is possible under this structure. Concretely, I will apply the parallel merge to the derivation of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Based on this structure, two focus elements derived in different c-command units could be matching goals for the same probe.

Key words Multiple focus construction, Focus cluster,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